

# 김용민브리핑

2016년 12월 6일 화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b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mailto: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60일의 건강보험증	02-766-1004
<b>아름다운재단</b>	<a href="http://www.beautifulfund.org">www.beautifulfund.org</a>
전통방식 숙성! 최고의 맛은	1599-6456, 010-9384-7970
<b>알싸한홍어</b>	<a href="http://alssahan.co.kr">alssahan.co.kr</a>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041-754-0884, 010-9754-6972
<b>정성농장홍삼</b>	<a href="http://jeongseongfarm.com">jeongseongfarm.com</a>
최고급 러시아 병동대게	1644-9047
<b>대게직거래장터</b>	<a href="http://cafe.naver.com/snowcrab09">cafe.naver.com/snowcrab09</a>
안티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031-783-6007
<b>비타샵</b>	<a href="http://vitashop.co.kr">vitashop.co.kr</a>
예쁜 구멍이 쏠! 장 청소는	070-4115-0365, 010-2892-0365
<b>미궁장사랑</b>	<a href="http://jangsarang.com">jangsarang.com</a>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1688-9113, 031-717-1613
<b>수아비스화장품</b>	<a href="http://www.suavisslab.com">www.suavisslab.com</a>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031-902-9292
<b>풍무양고기</b>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즌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b>매트리스엠</b>	<a href="http://www.mattressm.com">www.mattressm.com</a>
진보가 만든 상품판촉물은	032-519-4800
<b>내피알</b>	<a href="http://nepr.co.kr">nepr.co.kr</a>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a href="http://facebook.com/tartfarm13">facebook.com/tartfarm13</a>
<b>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킷박스점</b>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1544-4586
<b>이담채김치</b>	<a href="http://edamche.com">edamche.com</a>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070-8635-1288
<b>전창걸의새싹땅콩차</b>	<a href="http://전창걸.com">전창걸.com</a>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1566-0263
<b>좋은사람과플라워</b>	<a href="http://flowergood.co.kr">flowergood.co.kr</a>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02-849-9730
<b>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b>	<a href="http://cafe.daum.net/7000kim">cafe.daum.net/7000kim</a>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010-2443-0818
<b>와우전복</b>	<a href="http://wowabalone.modoo.at">wowabalone.modoo.at</a>
한우 사골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010-7252-1114, 031-989-9968
<b>연지연곰탕</b>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 특검, 차 마약중독 수사해야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박근혜 하야는 시간문제인 것 같습니다. 4월 퇴진을 명확히 하는 4차 담화를 오늘 발표한다고 하지요?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짓입니다. 그저 마지막 몸부림으로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오는 목요일, 금요일, 우리는 국회를 포위해야 합니다. 행여 탄막력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없도록 말이지요. 국민의 뜻과 국회의 뜻이 일치된다, 이것은 지난 주말 230만 촛불만큼 큰 역사가 될 것입니다.

특검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돼 박근혜가 직무정지 상태가 되자마자 즉각적인 체포영장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이 발부하면 그 즉시 박근혜의 신병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과 소변, 피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약 중독설부터 규명해야 합니다. 박근혜 마약투약설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만, 일단 확인해야 합니다.

어젯밤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에서 규명된 것인데요. 박근혜가 태반주사를 맞았다는 점입니다. 진실의 물꼬는 트였습니다. 만약 마약설이 사실이라면 박근혜는 헌법재판소까지 갈 여지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아울러 특검은 박근혜의 출국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가 기관원을 동원했다면, 그래서 탄핵에 찬성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흔들었다면 그 이유는 뻔합니다. 범죄자 자신을 지켜줄 방어막 수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방어막이 사라지면 튀는 수밖에 없습니다. 돈 있는 범죄자들이 그랬습니다.

혹자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운운할지 모르겠습니다. 왕조시대로 보자면 그는 폐주 즉 쫓겨난 임금입니다. 국정과 헌정의 공백을 걱정합니까? 자격 없는 자의 몰염치한 집권을 종식시키는 게 급선무이자, 근본적 치유책입니다. 굳이 결의를 다져야 할 또 하루가 열렸습니다.

###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 12월 6일(화) 1부 | 특검, 탄핵 즉시 박근혜 마약중독 수사해야

[오프닝] 탄핵 즉시 차의 모발, 소변, 혈액 채취해야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청와대 의무실장도 태반주사 처방 인정...진실의 문 열렸다

-경호실 차장 "최순실·차은택, 프리패스 가능한 보안손님"

-靚차도 "탄핵 표결" 靑 "대통령 거취 곧 결단 내릴 것"

-그런데 차, 여전히 버티는 듯... 참모들 기류와 온도차

-"대통령 지키려다 내가 죽을 판"... 탄핵 찬반 고민하는 靚차

-조선일보 김대중 "새누리당, 이제 야당하자"

[뉴스듣기능력평가] 박근혜 위한 꿀팁 "서울 내 구치소는?"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기자

-일본 극우신문 "일본에 최악은 문재인, 최선은 반기문"

-꽃꽂 장수의 헛스윙, 주중 한국대사관 사드 설명회 개최

[경제의 속살]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

-왜 국민은 정치인을 강하게 길들여야 하나?

-재벌 총수 청문회 시작, 주요 쟁점과 관련 포인트

[공화국 논평] '실연 제조기' 이정현에 대한 중대조치

최순실 국정조사

### 국민일보 靑 의무실장, “태반주사 놓아”

일명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이 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박근혜를 진료했느냐, 항정신성 약품 재고량이 왜 맞지 않느냐며 추궁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청와대에서 태반주사, 감초주사, 백옥주사가 대량으로 처방된 다음날에는 왜 대통령 공식 일정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의무실장은 모든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처방내역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의 질문에 태도를 바꿨다. “박근혜에게 태반주사를 놓은 게 맞느냐”는 질문에 “처치가 됐다”며 그동안 처방하지 않았다는 말을 뒤집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주로 대통령에게 처방했느냐”고 묻자 의무실장은 “대통령을 포함해 처방했다”고 대답했다.

### 중앙일보 靑 “최순실·차은택은 프리패스”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는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 차장도 출석했다. 이영석 경호실 차장은 최순실·차은택이 ‘보안 손님’이라고 인정했다. ‘보안 손님’은 대통령 접견인사 가운데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고 별도 출입하는 인사를 뜻하는 경호실 내부 용어다. 최순실, 차은택이 ‘프리 패스’를 통해 청와대를 자유롭게 드나들었다고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수구세력도 각자도생

### 朝鮮日報 친박도 탄핵 표결

새누리당이 오는 9일 예정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 표결에 자유투표를 할 예정이다. 친박계는 애초 대통령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국회 본회의장 입장을 자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부결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입장을 바꾸는 의원이 늘고 있다.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근혜가 곧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에 실렸는데 혹시 4월에 퇴진하겠다는 입장? 글썄, 하 나마나한 이야기, 해 뭐하나 싶다.

### 한국일보 “박근혜 혼자 버티고 있는 중”

대통령 박근혜가 오는 금요일 국회에서 탄핵될 위기에 처했음에도, 청와대 분위기는 ‘긴박’과 거리가 멀었다. 탄핵을 모면할 카드가 거의 없는 무기력한 처지 탓이다. 청와대 참모들은 “정해진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박근혜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입을 꼭 닫았다. 박근혜 혼자 버티고 있다는 말이다.

### 朝鮮日報 친박 “이러다 내가 죽을 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결국 정진석 원내대표가 제안한 '금요일 자유 투표' 방침을 받아들였다. 표결에 불참할 경우 공개적으로 탄핵 반대 세력으로 낙인찍히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친박 중진 의원도 "탄핵 반대 세력으로 찍히면 죽는다"는 광풍이 부는 상황에서 탄핵 가결은 점점 상수가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친박계에선 탄핵 찬성투표를 주저하는 일부 영남·충청권 친박 의원들까지 '탄핵 찬성'에 가세할 경우 찬성표가 230표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 朝鮮日報 김대중 “이제 야당 준비하자”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 새누리당 비박 중진의원에게 이런 충고를 했다고 한다. “5년 후 정권을 되찾아올 '훌륭한 야당'이 되는 것이 보수가 살고 새누리가 사는 길입니다.” 퇴출 대상들끼리 미련을 못 버리고 5년 후를 기약하고 있다. 김대중 고문 칼럼 일부 소개한다.

“모두들 '보수는 죽으라'며 마치 보수 자체에 결함이 있는 양 야단이지만 보수는 잘못이 없다. 잘못 선택한 기수가 보수에 먹칠한 것이다. 대통령 박근혜와 그 추종자들이 '사이비 보수'다. 새로운 기수를 뽑고 권토중래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나라에서 보수가 할 역할이다.”

보수가 잘못 없다니 기가 찰 이야기인데 하여간 야당 준비하자는 말은, 주목된다. 빈말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을·읽·는·책

역량의 창조 | 마사 누스바움 저



마사 누스바움이 말하는 '역량'은 한 사람이 타고난 능력과 재능인 동시에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환경에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의 집합을 의미한다.

김영한의 데스노트

한겨레 김기춘, 비판 판사에 징계 내렸나

<한겨레>가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 전문을 입수했다. 2014년 9월 22일에 작성된 업무수첩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뜻하는 '장'이라는 표시 옆에 '비위 법관의 직무배제, 김동진 부장'이라는 메모가 나온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지 록위마라며 비판한 판사다. 수원지방법원은 메모작성 4일만에 대법원에 김동진 부장판사의 징계를 청구했다. 결국 김동진 판사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원 징계를 김기춘이 결정했다는 정황이다.

한겨레 김기춘, 헌재 논의 속속들이 파악

이어서 2014년 12월17일에 작성된 업무수첩에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을 뜻하는 '장'이란 글자 아래 '정당 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이라고 적혀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뒤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어제 전한 통합진보당 사건 '연내 선고 방침'에 이어 재판 결과까지 청와대에 미리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위에 김기춘이 있었던 것이다.

한겨레 세월호 특조위에 정치지망생 인사

계속해서 한겨레 보도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에 관한 메모도 포함되어 있다. 메모에는 '세월호 진상조사위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은 정치지망생으로 1번 조대환, 2번 석동현이라고 적혀있다. 메모 내용은 실제로 시행됐다. 조대환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석동현은 비상임위원으로 선정됐다. 조대환은 대통령 박근혜의 인수위원회 시절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석동현은 2014년 재·보궐선거 당시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했다. 4.16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를 정치적 발판으로 삼게 했다는 이야기다. 개네들 거기서 열심히 휘방 놓았지?

최순실 국정농단

국민일보 국정원 '비위 정보' 알고도 묵살

국가정보원이 최순실 첩보 보고서들을 작성하고도 이를 국정원장과 청와대에 공식 보고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은 "당시 생산된 최순실 보고서는 '짜라시' 수준에 불과해 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짜라시 수준의 내용도 보고하던 국정원인데, 누가 이 말을 믿겠나. 결국 국가정보원 내 일부 세력이 최순실 관련 정보를 통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세계일보 정유라 2위 줬다고 모진 수모

이현배 전 승마협회 심판위원장은 정유라가 2위에 그친 2013년 상주 승마대회 직후 2차례나 경찰조사를 받았다. 당시의 충격으로 이현배 당시 승마협회 심판위원장은 심 판직을 그만뒀다. 이현배 전 위원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상적으로 심판을 봤다. 경찰도 기가 막혀 했다. 우리를 각듯이 조사하면서 '되지도 않는 걸 조사한다'며 투덜댔다" 최순실 횡포에 승마협회와 경찰도 농락당했다.

촛불 민심

한국일보 170만 모여 쓰레기는 1인당 '60g'



지난 토요일 열린 6차 촛불집회에서 광화문광장 일대에 모인 인원은 약 170만명으로 5만 여명이 참여한 1차 촛불집회보다 인원이 34배 증가했다. 그러나 서울시에 따르면 6차 집회의 쓰레기 배출량은 1차 집회 때보다 오히려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촛불집회가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쓰레기를 가져가거나 직접 치우는 시민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6차 집회 때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60g에 불과했다.

## 한국일보 이마트, ‘하야’ 배지달자 불이익

포항이동점 이마트 노동자가 대통령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배지를 달고 근무하다 징계를 받을 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은 해당 지점에 항의전화를 하고 불매운동을 언급하는 등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홈플러스노동조합은 ‘퇴진하라 박근혜’ 배지 달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밝혀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사측은 해당 프로젝트를 구두로 전달받았고, 이를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 국정교과서도 탄핵사유

## 東亞日報 “국정 교과서 2,3종으로 늘려야”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김정배 위원장은 청소년에게 자학사관을 심어줄 수 없다며 현재 검정 교과서들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양심껏 제대로 썼다면 검정이든 국정이든 무슨 상관이었느냐”며 국정 교과서도 두세 종으로 늘려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게 두 세 종으로 만드는데 그걸 모두 국정으로 하시겠다는 거다. 어떻게 늘어야 하는가 고민할 때, 김정배가 샘플링이 될 것 같다. 저렇게 늘으면 안 된다는.

## 국민일보

### 세종·이순신·김구보다 ‘박정희’

국정 역사교과서가 기존 교과서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보다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우편향 논란을 빚었던 교학사 교과서보다 더 심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백범 김구 선생보다 ‘박정희’가 더 많이 등장했다. 역사학계에서는 박정희를 찬양하는 ‘박비어천가’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일보가 조사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 교과서가 좋다는 거 아닌가.

### 오늘의 칼럼

## 경향신문 “변화 없인 최순실 따를 엘리트”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송기호 변호사의 경향신문 칼럼 “변화 없인 최순실 따를 엘리트”입니다. “왜 검사, 고위 관료,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국가 엘리트들은 최순실에게 저항하지 않았을까? 국민적 항쟁을 촉발한 ‘정유라 부정입학 사건’의 경우도 교육부가 이를 막을 법적 권한과 절차가 대학교육법에 있었다. 재벌의 돈을 받아 만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도 비영리재단법인설립법을 지켰다면 불가능했다. 비밀취급인가증이 없는 최순실에게 대통령 일정, 남북관계,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요한 비밀이 유출된 행위는 국가정보원법과 보안업무규정을 지켰으면 막을 수 있었다.

특히 국정원은 법에 의해 청와대에 대해 보안측정이나 보안사고 조사를 할 권한이 있다. 보안업무규정은 아예 국정원장에게 청와대의 보안업무가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권한을 주었다. 그런데도 최순실은 지속적으로, 아무런 견제 없이 국가 비밀을 건네받았다. 나는 국정원이 청와대가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하여 최순실에게 국가 비밀을 건네준 행위를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말 국정원이 몰랐다면 국정원장은 광화문광장에서 백배사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 엘리트들이 최순실에게 저항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들의 지배동맹이 영속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최순실 공소장에 의하면 청와대의 행정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가 비밀문서를 최순실에게 유출했다. 그 행정관은 대통령의 임기가 2018년 2월24일이면 끝난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가 그러한 행위를 한 이유는 그들의 지배동맹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배동맹을 혁파하는 것, 촛불혁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